

2018년 10월 24일, 제주시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, 이효순 조사.

좌사남(여, 1930년생, 제주시 외도1동)

-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출생, 제주4·3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한림읍 명월리와 한수리에서 살다가 현재는 외도1동 절물마을에서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다.

- 줄거리: 어떤 남자가 도박으로 돈을 벌어 돼지다리를 사서 메고 가다가 앞에서 젊은 여자를 만났다. 그 여자에게 흘려서 쫓아가다 보니 그 여자는 무덤 봉분 위에서 사라져 버렸다. 이후 그는 마을을 다니며 무덤 주인을 찾았는데 젊은 여자가 죽어서 거기 묻혔다고 하여 그 여자의 무덤임을 알게 되었다.

[조사자] 재미진 말.

[제보자] 다 잊어 불언 모르주게. 무신 옛말을 곱아 보코.

화투 쳐그네 노름허영 돈을 탓어. 그 남자가 노름허영 돈을 탓인디. 돈 탄 집에 뚫다리라도 하나 가정 강 각시 맥이젠 허영 뚫다리를 들러 메영 오당 보난, 고운 여자가 이제 앞이 걸어.

‘아이고, 뚫다리는 저 여자라도 어떻허영 사귀영 뚫다리, 뚫궤기 갈라 주주.’ 허영, 그 여자 가는 디 막 베리당 쫓아갔어. 쫓아가난 그 여자는 밧더레 톱 넘어가. 톱 넘어가난 그 남자도 밧더레 넘어간 거라.

봉분 위에 강 행허멍 자빠지난 여자가 었어져 분 거라. 었어져 부난, 이제 그 뚫다리 둘러멘 사람은 겁난 집에 뚫다리도 던져 불고 그 마을에 들어강

“어디, 요 아무 밧디 무덤 알아지쿠가?”

허난, 뒷집이 톱 죽언에 그디 묻엇젠. ‘아이고, 그게 귀신이 마땅하구나. 고운 여자가 나 앞이 상 걸어값언게마는.’ 뚫다리 둘러멧 오당 그 여자 흘렷 가 분 것이 봉분더레 강, 행 가난 그 여자가 었어져 불언. 그 마을에 강

“이 동네 어디 젊은 여자 죽은 디 잇우가?”

허난

“이 집이 딸 죽은 이디 문언.”

허난 그 집이 강

“딸 죽은 이디 문엇수가?”

허난

“예.”

허난, 그 귀신으로구나게. 그 귀신에 홀려그네 돛다리 둘러멧 오당 보난 그 여자 홀령 가당 보난 봉분 위터레 강 행 자빠지난 그 여자가 엇어정.

“귀신이 정녕헌가, 어평헌가 들어보고정 허영 왓수다.”

허영, 그 여자가 나왕 젊은 때 가니까 저 세상 못 가가지고 이 와중에 논 거라. 그 남자가 돛다리 둘러멧 와가난 홀령.

- 핵심어: 돛다리(돼지다리), 무덤, 봉분, 귀신, 여자, 딸(딸), 노름